

http://dx.doi.org/10.17703/JCCT.2024.10.5.557

JCCT 2024-9-66

간호대학생의 공감능력, 의사소통능력 및 인성이 대학적응에 미치는 영향

The Impact of Nursing Students' Empathy, Communication Competence, and Personality on College Adaptation

반선화*, 황세현**, 장경오***

Seon-Hwa Ban*, Se-Hyun Hwang**, Koung-Oh Chang***

요약 본 연구는 Y시 일개 대학교에 재학 중인 간호대학생들을 대상으로 공감능력, 의사소통능력 및 인성이 대학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다. 연구방법은 Y시 일개 대학교의 간호대학생 200명을 대상으로 구조화된 설문조사를 하였으며, 2024년 4월 29일부터 2024년 5월 27일까지 자료를 수집하였다. 연구 통계 방법은 SPSS/WIN 25.0 프로그램을 이용하였으며, t-test, 일원배치분산분석, 피어슨상관관계 그리고 다중회귀분석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간호대학생의 대학적응은 공감능력($r=.522, p<.001$), 의사소통능력($r=.557, p<.001$) 그리고 인성($r=.561, p<.001$)과는 정적인 상관관계가 있었다. 대상자들의 대학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2학년($\beta=-.148, p=.013$)이 1학년($\beta=-.297, p<.001$)보다 대학적응 수준이 높았고, 2학년($\beta=-.148, p=.013$)이 1학년($\beta=-.297, p<.001$)보다 대학적응 수준이 높았고, 공감능력($\beta=.295, p<.001$), 인성($\beta=.230, p<.001$), 의사소통능력($\beta=.157, p=.050$) 순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들 변수의 대학적응에 대한 설명력은 47.3%였다($\text{Adj } R^2 =.473, p<.001$). 따라서 간호대학생의 대학적응을 위해 학교 및 학과 차원에서 다양한 심리적 및 정서적 지원이 이루어져야 하며, 학년별 간호 대학생의 특성을 고려하여 공감능력, 의사소통능력 및 인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다양한 맞춤형 프로그램 개발 및 적용이 필요하다.

주요어 : 대학적응, 의사소통능력, 인성, 간호대학생, 공감능력

Abstract This study was a descriptive research study to determine the impact of empathy, communication competence, and personality on college adaptation among nursing students attending a university in City Y. The research method was a self-administered survey targeting 200 nursing students at a university in Y City, and data were collected from April 29, 2024 to May 27, 2024. The research statistical method used was the SPSS/WIN 25.0 statistical program, and was analyzed using t-test, one-way analysis of variance, Pearson correlation, and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In the correlation between each variable, college adaptation is related to empathy($r=.522, p<.001$), communication competence($r=.557, p<.001$), and personality($r=.561, p<.001$). And as a result of regression analysis, as a factor affecting the subjects' college adaptation, second-year students($\beta=-.148, p=.013$) had a higher level of college adaptation than first-year students($\beta=-.297, p<.001$). Additionally, the level of college adaptation was high in the order of empathy($\beta=.295, p<.001$), personality($\beta=.230, p<.001$), and communication competence($\beta=.157, p=.050$), and the explanatory power was 47.6%($\text{Adj } R^2=.476, p<.001$). Therefore, in order for nursing students to adapt to college, various psychological and emotional supports must be provided at the school and department level, and various customized programs that can improve empathy, communication competence, and personality should be developed and applied by considering the characteristics of nursing students by grade.

Key words : College Adaption, Communication Competence, Empathy, Nursing Students, Personality

*정희원, 영산대학교 간호학과 조교수 (제1저자)
**정희원, 영남이공대학교 치위생과 조교수 (참여저자)
***정희원, 영산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교신저자)
접수일: 2024년 7월 25일, 수정완료일: 2024년 8월 7일
게재확정일: 2024년 9월 5일

Received: July 25, 2024 / Revised: August 7, 2024
Accepted: September 5, 2024
***Corresponding Author: chk01015@naver.com
Dept. of Nursing, Y'sU(Youngsuan)University, Korea

1. 서론

간호교육은 이론적인 지식과 임상실습교육이 매우 중요하며[1]. 임상실습교육의 경우 임상현장에서 환자를 대상으로 실제적이고 잠재적인 다양한 문제를 다루기 위한 준비과정이다.

최근의 의료현장은 간호대상자의 높은 건강요구에 대한 서비스[1]와 더불어 환자의 권리를 중요시하는 환자 중심의 의료서비스가 강조된다. 이는 실제 간호대학생의 임상실습 시 간호대상자의 인권 존중 등 개인 보호의 사유로 간호대상자와의 대면 및 접촉 기회를 감소시키므로 임상실습에 대한 두려움과 스트레스를 더욱 가중시킨다. 이러한 상황에서 간호대학생이 졸업 후 신규간호사가 되었을 때 간호대상자와의 치료적 관계 형성에 많은 어려움을 경험하게 한다.

의료기술의 발전은 사망률은 낮추며, 이는 중증도가 높은 다양한 건강문제를 가진 환자를 증가시키고 있다. 이러한 임상현장에서 간호사는 간호대상자의 건강문제에 따른 우선순위를 신속하게 파악하여 간호문제를 해결해야 하는데, 이 상황에서 필요한 능력 중 하나가 공감능력이다[2]. 공감능력은 자신의 내면과 같이 타인을 지각하고 이해하며, 이를 지지적으로 전달하는 능력을 말하는데[3], 다양한 문제를 적절하게 규명하고 도와주는 중요한 기술로 임상현장에서 다양한 간호대상자를 만나고 그들과 상호작용을 통하여 간호대상자의 감정을 이해하고 치료적 관계를 유지 및 형성해야 하는 간호대학생과 간호사들에게 요구되는 필수 요소이다[4]. 임상현장에서 간호대상자에게 양질의 간호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간호대상자와의 치료적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하겠다. 이때 공감능력이 풍부한 간호사일수록 간호대상자에 대한 깊은 이해와 지각을 기반으로 업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환자 중심 간호를 제공할 수 있으며, 임상적응능력의 향상을 기대할 수 있다[5].

의사소통능력은 임상현장인 간호실무에서 다양한 문제 해결 과정에서 매우 중추적인 요소로 대상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치료를 효과적으로 향상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4]. 의사소통능력은 자신의 의사를 적절하게 표현하고 타인과 자신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을 때 자신의 관점을 명확하게 기술하는 능력을 말한다[6]. Park과 Lee[7]는 연구에서 간호대학생의 경우 3, 4학년

임상실습을 경험하면서 의사소통능력이 낮을수록 임상실습에 대한 스트레스가 높다고 하여 간호대학생에서 의사소통능력이 매우 중요함을 더욱 강조하고 있다 하겠다. 이처럼 간호대학생에 있어서 의사소통능력은 간호대상자의 정보를 얻을 수 있고 심각한 문제 발생 시 간호대상자와의 관계 형성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중재 방법이다[8]. 간호대학생은 임상실습을 통해 다양한 간호대상자를 직접·간접적으로 체험하면서 의사소통능력의 중요성[9]과 환자 중심의 간호를 하면서 간호대상자에게 공감하고 위로할 수 있는 공감능력이 매우 중요함을 깨닫게 된다. 의사소통능력은 공감능력과 정적인 상관관계가 있으며, 의사소통능력이 높은 간호대학생의 문제해결능력이 의사소통능력이 낮은 간호대학생보다 높다고 하였다[2]. 간호대학생의 경우 임상실습 시 타인과의 관계에서 의사소통 수단을 통하여 상호작용하는 능력은 간호교육의 핵심으로 바람직한 품성과 인성을 겸비한 예비 간호사가 반드시 갖추어야 할 능력이라 하겠다.

인성이란 사람의 성품, 개인의 사고, 태도 및 행동 특성을 말하며[10], 이는 후천적으로 교육을 통해 함양될 수 있다[11]. 인성은 자신의 내면을 올바르게 형성시키고, 타인, 공동체, 자연과 함께 본인의 삶을 인간답게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성품과 역량은 교육을 통해 길러진다[12]. 좋은 인성은 전문직 확립의 기초로, 간호의 질을 결정하게 하는 주요한 핵심역량으로[13] 환자 중심의 간호를 제공하는 간호사가 갖추어야 하는 바람직한 품성이며 간호전문가로서 다양한 간호대상자와 상호작용을 통하여 대인관계 형성에서 요구되는 기본적인 소양이다. 이를 바탕으로 간호사 간의 배려와 존중을 중시하는 조직문화 형성과 더 나아가 임상현장에서 간호사로서의 기본적인 인성과 바람직한 품성으로 간호대상자에게 간호와 돌봄을 제공해야 한다.

고등학교 졸업 이후 대학생은 부모로부터 심리적 독립은 물론 성인기 생활의 첫걸음을 하는 시기로[14], 대학 입시 위주의 고등학교에서 타율적, 의존적 그리고 수동적인 생활을 하다가 대학에 들어와 본인 스스로 자율성과 독립성을 갖춘 생활방식으로 전환하면서[15] 대학 적응에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경우가 많다.

간호대학생의 경우 입학과 동시에 전공영역이 확실히 정해져 있으므로 스스로 전공에 대해 충분히 탐색할 기회도 없이 적응하게 된다.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대

학생으로서의 역할기대, 책임, 자율 등을 요구받으며 직업 및 진로, 학점관리, 의사소통, 대인관계 및 임상실습 등 여러 다양한 문제에 직면하게 되어[16] 대학적응에 어려움을 호소하게 된다. Barbosa와 Raymond 등[17]은 간호대학생과 다른 학과 학생들과 비교하였을 때 학업과정으로부터 오는 스트레스가 가장 높다고 하였으며, 이는 간호대학생들 간의 치열한 경쟁으로 인한 심리적 압박과 과중한 수업량에 대한 부담감 때문으로 생각된다. 이처럼 간호대학생이 스트레스에 부적절하게 대응하게 되면 신체적, 정신적 건강에 문제를 경험하게 되고, 이러한 문제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면 의욕 상실은 물론 학업 성취도 저하를 가져오며, 졸업 이후 직업으로서 간호사를 선택한 것에 문제를 가져올 수 있다[2]. 따라서 간호대학생의 대학적응에 지속적인 관심과 체계적인 지원이 절실하게 요구되는 상황이다.

대학생이 대학생활에 적응해 가는 것은 교육과정 커리큘럼에 맞춰 학업을 잘 따라가고, 자신의 소속 대학과 학과에 전반적으로 갖게 되는 애착감 또는 유대감이다[18]. 간호교육의 경우 의료인으로서의 전문성뿐만 아니라 기본적인 직장생활에 필요한 능력으로 긍정적 사고와 적극적인 태도를 통하여 자신의 맡은 일에 책임을 지는 인성이 강조된다[19]. 간호대학생은 타 전공보다 윤리적인 행위의 실천, 다른 의료 조직과의 올바른 관계 형성, 국가시험에 대한 부담감, 과중한 학업에 함께 임상실습을 병행 등으로 인한 스트레스로 대학적응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20]. 대학생활의 부적응은 개인의 문제뿐만 아니라 사회생활의 부적응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16]. 따라서 간호대학생들의 부적응 문제를 예방하고 바람직한 품성과 인성을 겸비한 간호사로 성장할 수 있도록 대학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고 관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지금까지 간호대학생들의 대학적응과 관련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공감능력이 높을수록 의사소통능력이 높으며[21], 공감능력과 의사소통능력이 높을수록 문제해결능력이 높다 하였다[22]. 공감능력, 회복탄력성, 학업성취도[1],[16],[23] 그리고 의사소통능력이 높은 간호대학생이 의사소통능력이 낮은 간호대학생보다 문제해결능력이 높다고 하였다[24]. 하지만 이들 대부분의 연구는 간호대학생들의 공감능력, 의사소통능력이 임상실습 적응, 전공만족도, 학업성취도, 문제해결능력 및 대인관계 분석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가 대부분으로 간호

대학생의 공감능력, 의사소통능력 및 인성이 대학적응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공감능력, 의사소통능력, 인성 및 대학적응에 대해 파악하고, 이들 변수들 간의 관계와 대학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여 미래 의료인인 간호사로 성장할 간호대학생이 올바른 인성으로 대학 및 간호학과에 더욱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도우며, 간호교육 프로그램 개발에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본 연구를 시도하였다.

1. 연구목적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공감능력, 의사소통능력, 인성 및 대학적응에 대해 알아보고, 이들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와 대학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자 함이며,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 공감능력, 의사소통능력, 인성 및 대학적응의 정도를 파악한다.

둘째,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에 따른 공감능력, 의사소통능력, 인성 및 대학적응의 차이를 파악한다.

셋째, 대상자의 공감능력, 의사소통능력, 인성 및 대학적응 간의 상관관계를 파악한다.

넷째, 대상자의 공감능력, 의사소통능력 및 인성이 대학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한다.

II. 연구방법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Y시 일개 대학교에 재학 중인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공감능력, 의사소통능력, 인성 및 대학적응에 대해 파악하고, 이들 변수가 대학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2. 연구대상

본 연구는 경상남도 Y시에 소재하는 일개 대학교에 재학 중인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사전에 대학의 간호학과장의 구두로 허락을 받은 후, 2024년 4월 29일부터 2024년 5월 27일까지 구조화된 설문지로 자료를 수집하였다. 본 연구에서 필요한 표본 크기는 G*Power 3.1.9.2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다중회귀분석 기준으로 선행연구[3]를 근거하여 중간효과 크기 .15, 유의수준 .05, 검정력 $(1-\beta)$.95,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 8개, 공감능력,

의사소통능력 및 인성을 독립변수로 산출하였을 때, 대상자 수는 178명이었다. 탈락률 20%를 고려하여 214부를 배부하였으며, 이 중 응답이 내용이 불충분한 14명의 설문지를 제외하고 최종적으로 200부의 설문지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3. 연구도구

1) 공감능력

본 연구에서 공감능력은 Davis[25]가 제작한 IRI(Interpersonal Reactivity Index)검사, Bryant[26]가 제작한 정서공감 척도를 Jeon[27]이 재구성한 도구를 이용하였다. 공감 능력 척도는 총 30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각 문항에 대한 응답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의 5점 Likert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공감 능력 수준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Jeon[27]의 연구에서 Cronbach's $\alpha=.83$, 본 연구에서 Cronbach's $\alpha=.89$ 이었다.

2) 의사소통능력

본 연구에서 의사소통능력은 Navran[28]이 개발한 PCI(Primary Communication Inventory)를 Choi[29]이 다시 수정·보완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총 25개 문항으로,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 의 5점 Likert 척도로 높을수록 의사소통 효율성이 높음을 의미한다. Choi[32]의 연구에서 Cronbach's $\alpha=.84$,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alpha=.91$ 이었다.

3) 인성

본 연구에서 인성은 Kim[30], Chung, Park과 Choi[31], Park과 Huh[32]가 개발하고 타당화한 측정 도구를 대학생들에게 적합하도록 Jung[33]가 수정·보완한 도구를 이용하였다. 총 22개 문항으로,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의 5점 Likert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인성이 높음을 의미한다. Jung[36]의 연구에서 Cronbach's $\alpha=.92$,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alpha=.95$ 이다.

4) 대학적응

본 연구에서 대학적응은 학생의 대학적응 수준을 파악하기 위해 Kim과 Kang[34]이 개발하고 타당화 연구를 거친 도구를 Kim[35]가 수정·보완한 도구를 이용하

였다. 총 15개 문항으로 3개의 하위영역으로 구성되었으며,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까지의 5점 Likert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대학적응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Kim[35]의 연구에서 Cronbach's $\alpha=.86$,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alpha=.92$ 이었다.

4. 자료분석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WIN 25.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분석하였고,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은 빈도와 백분율, 공감능력, 의사소통능력, 인성 및 대학적응은 평균과 표준편차를 구하였다. 일반적인 특성에 따른 공감능력, 의사소통능력, 인성 및 대학적응의 차이는 t 검정과 일원배치분산 분석으로, 사후검정으로는 Scheffe's test를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는 Pearson's 상관관계로, 대상자의 공감능력, 의사소통능력, 인성이 대학적응에 미치는 영향은 다중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하였다. 대상자의 종속변수에 대한 정규성 검정을 위해 Kolmogorov-Smirnov를 실시한 결과 공감능력, 의사소통능력과 인성은 모두 정규분포였기에($p>.05$) 모수검정을 적용하였다. 측정도구의 신뢰도는 크론바흐 알파(Cronbach's α)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5. 윤리적 고려

본 연구는 Y 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의 승인 (YSU-IRB-202404-HR-147-01)을 받았다. 연구대상자에게 연구 목적과 방법, 설문지 작성 시간 등에 관해 설명한 후 연구의 목적을 이해하고 연구 참여를 자발적으로 결정한 후 연구 참여에 동의한 학생을 대상으로 연구 참여 동의를 작성하도록 하고 자료를 수집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연구의 목적만으로 사용하며, 연구대상자의 익명성을 보장과 연구가 끝나면 설문지는 연구종료 후 3년 이내 모두 폐기함을 설명하였으며, 설문 소요 시간은 20분 정도 소요되었다. 연구에 참여한 대상자에게는 설문을 진행 후 소정의 물품을 제공하였다.

III. 연구결과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에서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은 성별에서 여

자가 179명(89.5%)으로 많았으며, 나이는 20~24세가 128명(64.0%)으로 가장 많았다. 학년은 4학년이 68명(34.0%)으로 가장 많았으며, 형제관계에서 형제 또는 자매가 있는 경우가 180명(90.0%)으로 많았다. 형제 중 순위는 맏이가 85명(42.5%)으로 가장 많았고, 주거형태는 부모님과 거주하는 경우가 123명(61.5%)으로 가장 많았다. 경제상태는 중의 경우가 165명(82.5%)으로 가장 많았으며, 부모의 결혼상태는 결혼의 경우가 182명(91.0%)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Table 1].

표 1.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Subjects

Variable	Categories	n(%)
Gender	Male	21(10.5)
	Female	179(89.5)
Age (yr)	20~24	128(64.0)
	25-29	41(20.5)
	30-34	13(6.5)
	35-39	9(4.5)
	40 ≤	9(4.5)
Grade	Grade1	37(18.5)
	Grade2	46(23.0)
	Grade3	49(24.0)
	Grade4	68(34.0)
Sibling relationship	Only child	20(10.0)
	Has siblings	180(90.0)
Rank among brothers	Eldest	85(42.5)
	Middle	41(20.5)
	Youngest	74(37.0)
Housing type	Living with parents	123(61.5)
	Living alone, lodging	30(15.0)
	Dormitory	32(16.0)
	Etc	15(7.5)
Economic status	High	20(10.0)
	Middle	165(82.5)
	Low	15(7.5)
Parents' marital status	Marriage	182(91.0)
	Separation	6(3.0)
	Divorce	9(4.5)
	Bereavement	3(1.5)

2. 대상자의 공감능력, 의사소통능력, 인성 및 대학 적응 정도

대상자의 공감능력(5점 만점)의 평균 점수는 3.43±0.49점, 의사소통능력(5점 만점) 평균 점수는 3.66±0.55점, 인성(5점 만점)의 평균 점수는 4.02±0.57점 그리고 대학 적응(5점 만점)의 평균 점수는 3.70±0.56점으로 나타났다[Table 2].

표 2. 대상자의 공감능력, 의사소통능력, 인성 및 대학적응 정도
 Table 2. The degree of empathy, communication competence, personality and college adaptation

Variable	Range	M±SD
Empathy	1-5	3.43±0.49
Communication competence	1-5	3.66±0.55
Personality	1-5	4.02±0.57
College adaptation	1-5	3.70±0.56

3.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공감능력, 의사소통능력, 인성 및 대학적응 차이

본 연구에서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에 따른 공감능력은 학년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 의사소통능력은 4학년이 2학년, 3학년보다 그리고 1학년보다 의사소통능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인성은 성별과 학년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 사후검정 결과, 4학년이 3학년과 1학년보다 인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대학적응은 학년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 사후검정 결과, 학년이 높을수록 대학적응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Table 3].

4. 공감능력, 의사소통능력, 인성 및 대학적응 간의 상관관계

대상자의 공감능력, 의사소통능력, 인성 및 대학적응 간의 상관관계는 대학적응은 공감능력($r=.522, p<.001$), 의사소통능력($r=.557, p<.001$) 그리고 인성 ($r=.561, p<.001$)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인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4].

5. 대학적응에 미치는 영향

본 연구에서 대상자의 대학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학년과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인 공감능력, 의사소통능력 및 인성을 독립변수로 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잔차의 분포는 정규성을 만족하였고, 독립변수 간의 다중공선성을 검정하였을 때, 공차한계는 0.1이상이었으며, 분산팽창인자(Variance Inflation Factor, VIF)는 1.311~2.404로 10보다 낮아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없었다. 또한 잔차의 독립성 검정인 Durbin-Watson의 값은 2.060로 2에 가깝게 나타나 자기상관성은 없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산출된 회귀모형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F=31.131, p<.001$). 다중회귀분석 결과, 대상

표 3.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에 따른 공감능력, 의사소통능력, 인성 및 대학적응 차이

Table 3. Empathy, Communication Competence, and Personality on College Adaptation by General characteristics

Characteristics	Categories	Empathy		Communication Competence		Personality		College Adaptation	
		Mean±SD	t/f(p)	Mean±SD	t/f(p)	Mean±SD	t/f(p)	Mean±SD	t/f(p)
Gender	Male	3.39±0.11	0.12	3.52±0.12	1.42	3.78±0.12	4.14	3.52±0.12	2.61
	Female	3.43±0.04	(.728)	3.67±0.04	(.234)	4.04±0.04	(.043)	3.73±0.04	(.108)
Age (yr)	20~24	3.41±0.04	0.42 (.797)	3.62±0.05	0.629 (.642)	4.03±0.05	0.22 (.930)	3.64±0.05	1.41 (.233)
	25~29	3.46±0.08		3.72±0.09		4.01±0.09		3.87±0.09	
	30~34	3.38±0.14		3.68±0.15		4.02±0.16		3.70±0.16	
	35~39	3.37±0.17		3.68±0.18		3.85±0.19		3.70±0.19	
	40 ≤	3.60±0.17		3.97±0.18		4.08±0.19		3.81±0.19	
Grade	Grade1a	3.35±0.08	2.73 (.045)	3.16±0.08	15.07 ($<.001$) a<b,c<d†	3.73±0.09	4.55 (.004) a<c<d†	3.25±0.08	15.71 ($<.001$) a<b<c<d†
	Grade2b	3.30±0.07		3.75±0.07		4.02±0.08		3.62±0.08	
	Grade3c	3.43±0.70		3.74±0.07		4.08±0.08		3.81±0.07	
	Grade4d	3.55±0.06		3.81±0.06		4.13±0.07		3.93±0.06	
Sibling relationship	Only child	3.40±0.11	0.05	3.64±0.12	0.03	4.15±0.13	1.22	3.71±0.13	0.03
	Has siblings	3.43±0.04	(.829)	3.66±0.04	(.854)	4.00±0.04	(.271)	3.70±0.04	(.958)
Rank among brothers	Eldest	3.39±0.05	2.68 (.071)	3.65±0.06	0.930 (.396)	4.00±0.06	2.55 (.081)	3.67±0.06	1.43 (.256)
	Middle	3.58±0.08		3.76±0.09		4.19±0.09		3.94±0.07	
	Youngest	3.39±0.06		3.61±0.06		3.94±0.07		3.67±0.07	
Housing type	Living with parents	3.46±0.05	0.92 (.433)	3.68±0.05	1.851 (.139)	4.02±0.05	0.369 (.776)	3.76±0.05	1.54 (.206)
	Living alone, lodging	3.31±0.09		3.62±0.10		3.94±0.11		3.61±0.10	
	Dormitory	3.37±0.09		3.76±0.10		4.09±0.10		3.66±0.10	
	Etc	3.48±0.13		3.37±0.14		4.09±0.10		3.50±0.14	
Economic status	High	3.46±0.11	1.38 (.254)	3.84±0.12	1.67 (.191)	4.16±0.13	1.58 (.208)	3.81±0.13	0.53 (.592)
	Middle	3.40±0.04		3.63±0.04		3.98±0.04		3.69±0.04	
	Low	3.62±0.13		3.76±0.14		4.19±0.15		3.77±0.15	
Parents' marital status	Marriage	3.43±0.04	0.79 (.502)	3.66±0.04	0.461 (.710)	4.01±0.04	0.14 (.939)	3.72±0.04	0.37 (.777)
	Separation	3.29±0.02		3.84±0.23		4.06±0.23		3.66±0.23	
	Divorce	3.27±0.17		3.51±0.19		4.03±0.19		3.56±0.19	
	Bereavement	3.70±0.29		3.7~6±0.32		4.21±0.33		3.51±0.33	

† Scheffe's test

표 4. 주요변수와 대학적응 간의 상관관계

Table 4. Correlation with main variables

Variables	Empathy	Communication competence	Personality	College adaptation
	r(p)	r(p)	r(p)	r(p)
Empathy	1			
Communication competence	.437 ($<.001^{**}$)	1		
Personality	.512 ($<.001^{**}$)	.708 ($<.001$)	1	
College adaptation	.522 ($<.001^{**}$)	.557 ($<.001^{**}$)	.561 ($<.001^{**}$)	1

** $p<.001$

자들의 대학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2학년($\beta = -.148, p=.013$)이 1학년($\beta = -.297, p<.001$)보다 대학적응 수준이 높았고, 공감능력($\beta = .295, p<.001$), 인성($\beta = .230, p<.001$), 의사소통능력($\beta = .157, p=.001$) 순으로 영향을

표 5. 대상자의 대학적응에 미치는 영향

Table 5. The influencing Factor of College Adaption

변수	B	SE	β	t	p	
(상수)	1.209	.263		4.598	$<.001$	
Grade †	1	-.427	.091	-.297	-4.688	$<.001$
	2	-.197	.079	-.148	-2.496	.013
	3	-.069	.076	-.053	-0.909	.364
Empathy	.335	.070	.295	4.783	$<.001$	
Communication competence	.159	.081	.157	1.970	.050	
Personality	.226	.075	.230	2.989	.003	
$R^2 = .492, \text{Adj } R^2 = .476, F = 31.131, p < .001$						

† Grade dummy variable : Grade 4, VIP*=Variance Inflation Factor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들 변수의 대학적응에 대한 설명력은 47.6%였다(Adj $R^2 = .476, p < .001$)[Table 5].

IV. 논 의

본 연구는 Y시 일개 대학교에 재학 중인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공감능력, 의사소통능력 및 인성이 대학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그 결과를 근거로 논의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대상자의 공감능력 점수는 3.43점(5점만점)으로 보통보다 다소 높았다. 이는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연구한 Kim과 Byun[1]의 연구에서 공감능력 점수가 3.49점, Kim 등[21]의 연구에서 공감능력 점수 5.44점(7점 만점)으로 본 연구결과와 유사하였다. 하지만 Kim, Kang과 Park[16]의 연구에서 공감능력 점수가 3.16점으로 본 연구결과보다 점수가 낮았으며, Jo, Kim과 Hwang[8]의 연구에서는 3.62점으로 높아 본 연구결과보다 다소 높아 본 연구결과와 유사하지 않았다. 본 연구에서의 이러한 결과는 본 연구에 참여한 전체 대상자 200명 중 임상실습을 다녀온 3, 4학년이 117명으로 환자와 신뢰 관계 형성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치료와 간호를 위해 환자의 마음을 이해하고 공감한 경험의 결과로 여겨진다. 공감능력은 임상현장에서 환자 및 보호자와 신뢰 관계를 형성하고 효과적인 의사소통을 하는데 도움을 주며, 양질의 간호서비스를 제공하는 토대가 되므로 간호사와 간호대학생에게는 필요한 자질로 매우 중요하다. Barbosa 등[17]도 공감능력은 환자-의사 관계의 질 향상과 더불어 여러 가지 긍정적인 결과와 관련이 있다고 하였다. 이렇듯 간호대학생의 공감능력 향상을 위해 간호교육 과정 및 비교과 프로그램을 통하여 다양한 공감능력 함양 프로그램을 활용하여[5] 공감능력을 함양시킬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본 연구결과와 선행연구들과 비교하였을 때 공감능력 점수에서 다양하게 차이가 있어 일반화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 생각된다. 따라서 반복연구를 통하여 타 전공학생과의 공감능력에 대한 비교연구 등, 간호대학생의 공감능력을 재확인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 의사소통능력 점수는 3.66점(5점 만점)으로 보통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Kim 등[21]의 연구에서 3.65점, Jo, Kim과 Hwang[8]의 연구에서 3.56점(5점 만점)으로 본 연구결과와 같은 맥락이라 하겠다. 의사소통능력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의사소통을 통해 효과적으로 상호작용하는 것을 의미함으로 임상현장에서 간호대상자, 동료 및 여러 부서의 직원들

과 환자에 대한 정보 공유와 소통을 하기 위해 중요하다. 또한 간호대상자에게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간호사들은 간호대상자인 환자의 안전과 간호의 질 향상을 위해 의사소통 시 본인의 의견을 명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 의사소통능력이 매우 필요하다. 따라서 간호대학생이 간호교육 과정과 비교과 프로그램을 통해 체계적인 의사소통 교육과 훈련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 인성 점수는 4.02점(5점 만점)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You, Shin과 Mim[36]의 연구에서 인성 점수가 4.05점으로 본 연구결과와 유사하였다. 하지만 Lim과 Choi[9]의 연구에서 인성 점수가 3.93점(5점 만점)으로 본 연구결과와 유사하지 않았다. 임상에서 간호사는 다양한 환자의 마음, 감정과 느낌을 잘 이해하고 수용하여야 하며 간호대상자와의 관계뿐만 아니라 보호자, 의사 및 타 부서 의료진과 원만히 대인관계가 형성되어야 원만이 업무를 수행할 수 있으므로 매우 중요하다. 본 연구에서의 이러한 결과는 2015년부터 인성교육의 중요성이 국가차원에서 제기되면서[9], 본교 차원에서도 인성교육에 대한 중요성을 매우 강조하여 전체 교양교육 과정에서 인성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커리큘럼을 만들어 학생들이 수강하도록 하였고, 한국간호교육평가원의 인증평가에서도 인성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여 노력해 온 결과로 여겨진다.

본 연구에서 대학적응 점수는 3.70점(5점 만점)으로 보통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Jang[23]의 연구에서 대학생활적응 점수가 3.75점(5점 만점)으로 유사하였다. 하지만 Kwag[15]의 연구에서 대학생활적응 점수가 3.50점(5점 만점)으로 본 연구결과 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결과와 유사하지 않았다. 간호대학생의 성공적인 대학적응은 성인 초기의 발달과업 달성과 더불어 향후 높은 임상현장 적응력을 갖춘 신규간호사의 양성을 위해 매우 중요하며, 단순히 학교 및 간호학과 적응이라는 의미를 넘어 미래의 간호사를 준비하는 중요한 과정의 시기로 다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간호대학생이 입학 시부터 간호학과 선택 동기별 맞춤형 심층적인 개별 상담으로 심리적 안정을 시키며 더불어 학교 및 간호학과에 보다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도가 필요하다.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에 따른 공감능력은 학년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는데, 이는 Kim과 Byun[1]의 연

구에서 성별과 건강상태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 Jo, Kim과 Hwang[8]의 연구에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결과와 유사하지 않았다. 공감능력은 상대방의 내면을 자신의 내면처럼 지각하여 이를 지지적으로 전달하는 능력이다[3]. 따라서 간호대학생들이 다양한 공감능력 향상 프로그램을 통하여 고통받고 있는 환자의 마음을 공감하고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일반적인 특성에 따른 의사소통능력은 4학년이 2학년, 3학년보다 그리고 1학년보다 의사소통능력의 효율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Kim과 Byun[1]의 연구에서 복합적, 외형적 성격이 내성적 성격보다, 건강상태는 좋음이 보통보다 그리고 임상실습 만족도는 좋음이 보통보다 의사소통능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결과와 유사하지 않았다. 그리고 Jo, Kim과 Hwang[8]의 연구에서도 간호학 전공 만족도의 경우 만족하는 경우가 보통보다 높았으며, 의사소통능력이 높은 간호대학생이 지난 학기 학점에서 4.0 이상이 3.0-4.0과 3.0 이하보다 높은 점수인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결과와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의사소통능력은 간호 실무에서 간호문제 해결 과정 시에 중추적인 요소로[4] 중요한 역할을 한다. 본 연구에서 이러한 결과는 4학년일수록 임상실습 등의 경험으로 의사소통능력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이러한 결과가 나타났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므로 간호교육과정과 비교과 프로그램을 통하여 의사소통능력을 함양시킬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적용하여 간호대학생들의 치료적 의사소통능력 등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할 것이다.

일반적인 특성에 따른 인성은 4학년이 3학년과 1학년보다 인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Ji, Son과 Shim[37]의 연구에서 전공만족도에서 만족이 보통과 불만족보다, 봉사활동 만족도에서 만족이 중립보다 인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좋은 인성은 전문직 확립의 기초가 되며, 타인에 대한 배려, 성실함, 타인에 대한 존중 등의 특성을 가진다. 본 연구에서는 4학년이 3학년과 1학년보다 인성이 높다고 하였는데 본 간호학과 교육과정에서 인성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지속적인 인성교육을 한 결과로 생각된다. 따라서 인성은 후천적으로 교육을 통하여 함양할 수 있다고 하였으므로[12] 간호대학생들이 환자를 돌봄에 있어 환자에 대한 존중과 배려, 성실함을 겸비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에서부터 좋

은 인성을 함양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할 것이다.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에 따른 대학적응에서 학년이 높을수록 대학적응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Kim, Kang과 Park[16]의 연구에서 1, 2, 3학년이 4학년보다 대학적응 수준이 높다고 하였으며, 대학생활에 만족할수록 대학생활적응 수준이 높아 본 연구결과와 유사하지 않았다. 대학적응은 대학 내 환경과 다양한 관계에서 능동적으로 상호작용하는 것이다. 따라서 간호대학생이 대학적응 수준을 높일 수 있도록 저학년부터 다양한 대학적응 프로그램 활용으로 대인관계 시 능동적으로 상호작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여 대학생활 만족감 향상시켜 대학적응을 잘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할 것이다. 또한 선행연구와 차이가 있으므로 향후 반복적인 연구가 이루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 공감능력, 의사소통능력, 인성 및 대학적응 간의 상관관계에서 대학적응은 공감능력, 의사소통능력 그리고 인성과는 정적인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Kim, Kang과 Park[16]의 연구에서 공감능력과 의사소통능력과 정적인 상관관계, Oh와 Park[38]의 연구에서 공감능력과 대학생활적응과 양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본 연구결과와 같은 맥락이라 하겠다. 공감능력, 의사소통능력 및 인성이 높은 예비간호사인 간호대학생의 대학적응을 높일 수 있도록 효율적인 교육프로그램을 개발 및 적용으로 향후 임상현장에서 간호사로서 환자, 보호자 및 다른 영역의 사람들과의 대인관계에서 어려움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 대학적응에 미치는 영향 요인을 분석한 결과, 2학년이 1학년보다 대학적응 수준이 높았으며, 공감능력, 인성, 의사소통능력 순으로 대학적응에 미치는 영향요인임을 알 수 있었다. 이는 Kim, Kang과 Park[16]의 연구에서 대학생활적응에 미치는 요인으로 공감능력, 의사소통능력, 대학생활 만족도 순으로 나타나 본 연구결과와 부분적으로 일치하였다. 그리고 일반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Lee[39]의 연구에서 의사소통능력이 대학생활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결과와 유사하였다. 간호대학생의 대학적응은 학교적응이라는 단순한 의미를 넘어 미래를 준비하는 중요한 성인기 생활의 첫걸음으로[14], 미래 간호사인 간호대학생에게 대학생 시기에 형성되는 적응은 현재의 생활뿐만 아

나라 이후의 임상현장에서도 연계되어 많은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간호대학생의 중도 탈락을 막고 학교와 간호학과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공감능력, 의사소통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훈련이 필요하며, 이를 위한 체계적인 간호교육 과정 수립이 필요하다. 또한 인성함양을 위해 교양 교과목 및 다양한 프로그램을 활용하며 간호대학생이 대학적응을 잘 할 수 있도록 간호대학생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프로그램 개발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V. 결 론

본 연구는 Y시 일개 대학교에 재학 중인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공감능력, 의사소통능력 및 인성이 대학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함이며, 그 결과를 토대로 논의하고 한다.

본 연구에서 공감능력과 의사소통능력은 보통보다 다소 높았으며, 인성은 높았고 대학적응은 보통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각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에서 대학적응은 공감능력, 의사소통능력 그리고 인성과는 정적인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중회귀분석 결과, 2학년이 1학년보다 대학적응 수준이 높았으며, 공감능력, 인성, 의사소통능력 순으로 대학적응에 미치는 영향요인임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 결과를 토대로 간호대학생의 대학적응을 위해 학교 및 학과 차원에서 간호학과와 과중한 수업, 친구 등 대인관계에서의 어려움, 향후 임상실습에 대한 불안감 등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다양한 심리적 및 정서적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간호학과 특성에 맞는 다양한 맞춤형 프로그램 개발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본 연구는 일 지역사회 대학교에 재학 중인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하였으므로 일반화하기에 한계가 있다. 하지만 인성은 간호전문가로서 다양한 간호대상자와 상호작용을 통하여 대인관계 형성에서 요구되는 기본적 소양이며, 인성 함양은 후천적인 교육으로 함양될 수 있으므로 신입생 때부터 올바른 인성 함양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교육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간호대상자와 보호자, 동료, 직원 등과의 대인관계에서 특히 필요한 것이 공감능력과 의사소통능력이므로 학년별 특성을 고려하여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과 적용으로 인성, 공감능력 및 의사소통능

력이 향상시켜 대학적응을 보다 잘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향후 간호대학생뿐만 아니라 일반대학생의 대학적응을 돕기 위해 공감능력, 의사소통능력, 문제해결능력과 다양한 사회적, 심리적 변수를 적용한 연구와 대학적응에 다양한 문제가 발생됨으로 심층 면접을 통한 질적연구를 제안한다.

References

- [1] M.Y. Kim and E.K. Byun, "Effects of Empathy, Communication skills and Resilience on the Adaptation of Clinical Practice in Nursing College Student", *The Journal of the Convergence on Culture Technology*, Vol. 8, No. 1, pp. 105-113, January, 2022. <http://dx.doi.org/10.17703/JCCT.2022.8.1.105>
- [2] Y.H. Hwang and S.J. Park, "The effects of empathy and self concept on problem solving: Focusing on the mediating effect of communication of nursing students",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Vol. 26, No. 4, pp. 348-356, Nov 2020. <https://doi.org/10.5977/jkasne.2020.26.4.348>
- [3] D. Rogers, and C. Hudson, "The role of emotion control and emotional ruminations in stress management training.", *International Journal of Stress Management*, Vol. 2, No. 3, pp. 119-132, 1995
- [4] A. Y. Fatma, P. Sehrinaz, and K. Tennur, "Relationship between the problem solving skills and empathy skills of operating room nurses", *Journal of Nursing Research*, Vol. 28, No. 2 pp. e75, 2020. https://journals.lww.com/jnr-twna/fulltext/2020/04000/relationship_between_the_problem_solving_skills.4.aspx
- [5] S.Y. Jang, "The Effect of Empathy on Resilience of Nursing Students", *Korean Academy on Communication in Healthcare*, Vol. 12, No. 2, pp. 211-221, 2017. <http://dx.doi.org/10.15715/kjhcom.2017.12.2.211>
- [6] Y.K. Yang, "Mediating Effect of Communication Skill in the Relationship between Fatigue and Clinical Practice Stress in Nursing Students", *Korean Academy of Fundamentals of Nursing*, Vol. 25, No. 1, pp. 58-67, 2018. <https://doi.org/10.7739/jkafn.2018.25.1.58>
- [7] J.S. Park and J.H. Lee, "Relationship of Communication Skill, Depression, and Clinical Practice Stress of Nursing Students", *Journal of*

-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 19, No. 10, pp. 254-262, 2018. <https://doi.org/10.5762/KAIS.2018.19.10.254>
- [8] E.H. Jo, Hyun-Sook Kim and Soon-Jung Hwang, "Mediating effect of communication ability in the relation between empathy and interpersonal relation in nursing students",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Vol. 26, No. 3, Aug 2020. <https://doi.org/10.5977/jkasne.2020.26.3.290>
- [9] J.H. Lim and M.H. Choi, "The Influences of Self-leadership and Communication Skills on Character among Undergraduate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alysis Society*, Vo. 23, No. 3, pp. 1383-1398, June, 2021. <https://doi.org/10.37727/jkdas.2021.23.3.1383>
- [10] National Institute of Korean Language Standard Korean Dictionary(2024. 4. 2.). National Institute of Korean Language Standard Korean Dictionary Website, Retrieved April 2, 2024, from <https://stdict.korean.go.kr/search/searchView.do?pageSize=10&searchKeyword=%EC%9D%B8%EC%84%B1>
- [11] T. Lichona, "Educating for character: how our schools can teach respect and responsibility", New York: Bantam Books, 1991.
- [12] Character Education Promotion Act. Article 2 no. 1 of character education promotion act, national Law Information Center website, Retrieved April 02, 2024, from <https://www.lawnb.com/Info/ContentView?sid=L000012237>
- [13] S.S. Sim and Mi-Ran Bang,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character, interpersonal relations, and adjustment to a college life of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 17, No. 12, pp. 634-642, 2016. <https://doi.org/10.5762/KAIS.2016.17.12.634>
- [14] J.Y. Choi, "The Mediating Effect of Social Support on Major Satisfaction and College Adjustment among Nursing Students", *Korean Journal of Safety Culture*, Vol. 24, pp. 31-42, Sep 2023. <http://doi.org/10.52902/kjsc.2023.24.31>
- [15] H.J. Kwag, "Relationship between Personality Type, Resilience and College Life of Nursing Students", Unpublished Master's thesis Konyang University, Seoul, 2020.
- [16] M.Y. Kim, E.H. Kang and H.J. Park, "Effects of Communication Competence, Empathy Ability and Problem-solving Skills on College Adjustment in Nursing College Students",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Vol. 21, No. 10, pp. 283-294, 2021. <https://doi.org/10.22251/jlcci.2021.21.10.283>
- [17] P. Barbosa, G. Raymond, C. Zlotnick, J. Wilk, R. Toomey III, and J. Mitchell III, "Mindfulness-based stress reduction training is associated with greater empathy and reduced anxiety for graduate healthcare students", *Education for health*, Vol. 26, No. 1, pp. 9-14, 2013.
- [18] R. W. Baker, and B. Siryk, "Measurability adjustment to college".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Vol. 31, No. 2, pp. 179-189, 1984.
- [19] M.H. Lim, "Effects of Character,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and Professional Self-Concept on College Adjustment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 17, No. 8, pp. 560-568, 2016. <https://doi.org/10.5762/KAIS.2016.17.8.560>
- [20] Y.K. Yang, K.S. Han, M.H. Bae and S.H. and Yang, "Social Support, Academic Stress, Clinical Practice Stress in College Student of Nursing", *Stress Research*, Vol. 22, No. 1, pp. 23-33, 2014.
- [21] G.H. Kim, E.K. Han, D.H. Kim, S.H. Kim, J.E. Kim, H.J. Kim et al, "The influence of self-awareness and empathy on the communication ability of nursing students",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Vol. 20, No. 7, pp. 451-465, 2020. <http://dx.doi.org/10.22251/jlcci.2020.20.7.451>
- [22] M.S. Kim, "The Influence of Academic Self-efficacy, Empathy and Communication Skills on Problem Solving Ability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East-West Nursing Research*, Vol. 28, No. 2, pp. 104-111, 2022. <https://doi.org/10.14370/jewnr.2022.28.2.104>
- [23] Y.M. Jang, "The Effects of Media Literacy and Academic Achievement on College Adjustment among Nursing Students - Focusing on Adult Learners -", *Korea Safety Culture Society*, Vol. 26, pp. 215-227, 2024. <http://doi.org/10.52902/kjsc.2024.26.215>
- [24] I.H. Cho and M.R. Park, "Comparison of problem solving ability according to degree of communication ability of nursing students", *Asia-pacific Journal of Multimedia Services Convergent with Art, Humanities, and Sociology*, Vol. 7, No. 7, pp. 397-404, July 2017. <http://dx.doi.org/10.14257/ajmahs.2017.07.38>
- [25] M. H. Davis, "A Multidimensional approach to individual difference in empathy", *JSAS Catalog of Selected Documents in Psychology*, Vol. 10,

- pp. 85-103, 1980.
- [26]B. K. Bryant, "An index of empathy for children and adolescents", *Child Development*, Vol. 53, PP. 413-425, 1982.
- [27]B.S. Jeon, "The Relationship between Empathy and Altruistic Behavior", Unpublished Master's thesis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Daejeon, 2020.
- [28]L. Navran, "Communication and adjustment in marriage. the family process", Vol. 6, pp. 173-184, 1967.
- [29]E.Y. Choi, "The Effects of a Communication Skills Group on High School Students' Self-concept and Communication Ability", Unpublished Master's thesis Kosin University, Pusan, 2020.
- [30]E.J. Kim,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a character scale for university students", *Journal of Youth Welfare*, Vol. 19, No. 3, pp. 81-108, 2017. <http://dx.doi.org/10.19034/KAYW.2017.19.3.04>
- [31]S.J. Chung, H.S. Park and H.B. Choi, "Development of Character Education Effect Scale for College Students: Focused on Sahmyook University", Vol. 33, pp. 83-116, 2021.
- [32]S.M. Park and S.H. Huh, "A study for development of the integrated humanity scale for adolescent", *The Journal of Child Education*, Vol. 21, No. 3, pp. 35-47, 2012.
- [33]B.J. Jung, "The Structural Relationship among Character, Resilience, Learning Motivation, Student Engagement, and Learning Outcomes of Undergraduate Students A Focus on a Small Christian Universities -", Unpublished Master's thesis Sookmyung Women's University, Seoul, 2022.
- [34]K.H. Kim and S.B. Kang,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the College Life Adjustment Scale for University Freshmen", *Korean Journal of General Education*, Vol. 1, No. 3, pp. 253-293, 2016.
- [35]J.W. Kim, "The Effects of Self-Directedness on College Adjustment through Academic Resilience", Unpublished Master's thesis Seoul National University, Seoul, 2022.
- [36]E.J. You, M.W. Shin and H.H. Min, "Effect of Health Department Students' Major Satisfaction and Communication Ability on Personality",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Oral Health Science*, Vol. 10, No. 3, pp. 26-31, 2022.
- [37]E.S. Ji, M.S. Son and K.-K. Shim, "Association between a Motivation to Volunteer, Personality, and Interpersonal Relationships in Nursing College Students", *Journal of East-West Nursing Research*, Vol. 26, No. 1, pp. 100-107, May 2020. <https://doi.org/10.14370/jewnr.2020.26.1.100>
- [38]Y.H. Oh and M.S. Park, "Influence of Interpersonal Ability on College Life Adjustment in Freshman in Nursing College: Mediation Effect of Empathy Ability",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Vol. 18, No. 8, pp. 331-341, 2020. <https://doi.org/10.14400/JDC.2020.18.8.331>
- [39]H.Y. Lee, "A study on adaptation to college life according to communication skills and conflict management types of college students", Unpublished Master's thesis Kunkuk University, Seoul, 2017.